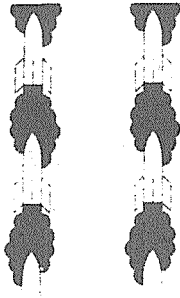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93. 11. 1~11. 30〉

11. 1: 상공자원부, 금년도 전자·전기분야의 수출목표(233억 달러)를 달성하기 위해 품목별 업체별로 수출활동 점검에 나서기로 하고 대상업체 및 품목선정 작업을 마쳤다고.
11. 2: 상공자원부,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육센터(TI)와 창업보육센터(BI)사업을 통합 신기술 창업지원사업(TBI)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하고 이는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용화 개발과 사업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무자본 기술자를 발굴 지원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.
11. 5: 공진청, 국가간 서로 다른 통신기술 규격을 통일하고 국내 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·독·일·불 등 주요 선진국 19개국의 통신기술 전문가 250여 명을 대거 초청한 가운데 통신기술 국제표준화회의를 열고 현재 개발중인 차세대 통신기술의 국제적인 통일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
11. 9: 체신부, 오는 12월 11일까지 전국 54개 종합위성방송 사업구역에 전송망 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아 연말까지 사업자를 지정키로 했다고.
11. 10: 생기원, 외국 ISO인증 기관과 협력, 국내 업체들의 ISO9000 시리즈 획득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. 최근 호주 규격협회 품질보증단(SA-QAS)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영국 규격협회 품질보증부(BSI-QA)와도 협력키로 합의 연내 협력 양해각서 체결키로.
11. 11: 체신부, 금년도 1,040억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계획중 지난 7월 3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

기술개발과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지원분야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어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지원할 500억원의 자금중 342억 6,000만원을 지원받을 대상업체를 선정했다고.

11. 11: 과기처,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연구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·노하우 등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출연연구보유기술 무상양허사업의 2차지원 과제를 선정했다고.
11. 22: 전자부품연구, 잉크젯 프린터의 헤드와 메커니즘, 컨트롤러 등 3개 분야에 대해 컴퓨터 업계와 공동으로 국산화계획을 마련 '96년까지 추진 개발키로.
11. 23: 공진청, 국내에서의 국제품질보증체계 인증심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심사원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 했다고.
11. 23: 특허청, 반도체칩 기술보호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이래 민간기업의 설정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.
11. 25: 체신부, 오는 2003년까지 10년간 8조 2,000억원을 투입 컴퓨터, 반도체, 전파, 교환 등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보통신진흥 중장기계획(안)을 마련했다고.
11. 28: 상공자원부, 현재 237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58개 업종을 내년 9월 1일부터 해제기로 한 당초계획을 고쳐 해제업종을 9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고.
11. 29: 산기협, 10월말 현재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1,646개를 기록 지난해 동기 1,399개보다 17.6% 늘어난 것으로 집계. 특히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증가율은 무려 24.3%를 기록 10월말 현재 1,087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11. 29: 공진청,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「94중소기업 경영 및 생산현장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계획」을 공고 했다. 이번에 공고된 기술지도 대상분야는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로서 생산현장기반기술, 기계류, 부품·소재, 경영관리 및 품질경영분야와 공장혁신을 위한 공정기술 등으로 공진청 및 전국에 소재한 지방공업기술원 등 40개 기관이 지도를 담당한다고.
11. 30: 상공자원부, '94년부터 한국중견 중소기업 기술자들이 일본 규슈에서 첨단기술 연수를 받고, 규슈지역의 퇴직기술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급기술을 전수하게 된다고.
11. 30: 상공자원부,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중 개발이 시급한 108개 기술과제를 선정해 올해부터 3년간 정부와 민간이 830억원을 투입 개발키로 했다고.